

2022년 9월 4일 “예수님의 비유(12) 사마리아인”(눅 10:25-37)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 때 참된 이웃으로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1] 비유의 배경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중심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십니다.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웃의 범주를 규정해달라는 그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어떤 이웃이어야 하는지 가르치십니다. 역사 속에서 선한 행위를 한 사마리아인들을 떠올리며 각색하신 비유인 것 같습니다(대하 28:5-15).

[2] 비유 속 사마리아인

강도에게 피해입은 자를 본 제사장과 레위인은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마도 핑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 달랐습니다. 측은한 마음이 들었고(33 절후) 다 나올 때까지 정성을 다하며 치료 비용까지 부담해줍니다.

사마리아인이 참 이웃이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질문이었던 이웃의 범주를 정해주시지 않고, 이웃 됨의 조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3] 좋은 이웃의 의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자가 참 이웃이라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인간의 참 가치를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는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안다고 인간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 율법교사처럼 이웃이 누구인지 규정하고 사랑의 의무의 한계를 지으려는 마음의 꾀수를 부리는 것은 영생의 길에서 잘못 나간 것입니다.

주님은 그가 피해가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을 만났는데, 저런 자까지 도와주어야 하는가? 더 나아가 자기 죄로 인해 왕따를 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도 이웃이냐며 자신의 거부를 정당화하고 싶은 인간의 속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대에게서 이웃됨의 조건을 찾지 말고, 내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인지 묻기를 원하십니다. 이 절차는 참 인간됨의 가치를 회복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 아직 완성된 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구분하여 사랑할 수 없음을 정당화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 못할 이유는 그들 안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대우하시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얼마나 자비로운 이웃인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맺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으로 오시는 자비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분명히 참된 이웃으로서 인간의 참 모습을 회복하려는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질문>

1. 오늘 비유를 통해 당신은 관계 맺고 있는 대상(이웃)에게 어떤 이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주님이 당신에게 참 이웃의 롤모델이 되시나요?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